

2017년 상반기



해외출장 가이드

스웨덴 스톡홀름 출장자료

【 목 차 】

I. 스웨덴 개황	1
II. 정치사회 동향	2
III. 한국-스웨덴 관계	6
IV. 시장특성 및 상관습	8
V. 최근 경제동향 및 전망	15
VI. 스웨덴의 투자환경	17
VII. 한-스웨덴 교역현황	21
VIII. 한-스웨덴 투자현황	25
체류시 편의정보	27





I. 스웨덴 개황

1. 지도



1992 MAGELLAN GeographixSM Santa Barbara, CA (800) 929-4627



2. 국가 현황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동쪽에 위치한 스웨덴은 동서의 최장길이가 499 Km, 남북이 1,574 Km이며 총 면적은 449,750 평방킬로미터로서 한반도의 2.4배 임. 북유럽 가운데서 가장 크며 유럽에서도 네 번째로 큼.

스웨덴의 국토는 삼림 50%, 경작지 10%, 호수와 하천 9%, 기타 31%로 구성되어 있으며 호수의 수도 96,000여개에 달하고 있음.

노르웨이와 국경을 이루는 산악지대로부터 동쪽으로 향해서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높은 산은 주로 북부의 국경부근에 있음. 가장 높은 산은 북단에 위치한 케브네카이세(2,111m)이며, 가장 긴 강은 토네(570 Km)강임.

스웨덴인은 북구 게르만족의 한 부류로 다른 인종과의 혼혈정도가 적은 편으로 지능이 우수하고 깊이 생각하며 매사에 성실한 반면, 남유럽인 같은 정열은 찾아보기 어려움. 생활 태도는 매우 실용적이며 합리적임. 공동의 이익에 관해서는 단결하고 협력하나 개인생활은 타인을 간섭하거나 간섭받는 것을 싫어함.

공식국명	스웨덴 왕국(The Kingdom of Sweden)
수 도	스톡홀름(Stockholm) 수도인구 92만명, 광역권 포함 223만명 북위 59도에 위치, 서울특별시 면적의 1/3수준
면 적	449,964km ² (한반도의 약 2.4배, 남한의 4.5배)
인 구	10,014,873명(2017. 4월말 기준)
인 종	북구 게르만족(95%) 사미(Sami)족(0.2%)
언 어	스웨덴어(Swedish) 국민의 영어 구사능력이 뛰어남
종 교	루터교(Lutheran Church 국교, 88%)
정 체	입헌군주제
정부형태	내각책임제
국가원수	칼 구스타브 16세(Carl XVI Gustaf) 국왕 (1973년 즉위)
수 상	스테판 뢰벤(Stefan Löfven/사민당)
주요보유자원	철광석, 은, 금, 납, 아연, 동
1인당 GDP	US\$ 49,143(2016)
국가명목GDP	US\$ 5,105억(2016))
화폐단위	Swedish Krona 2016 연평균 : US\$1=SEK8.56
대외무역	수출: US\$ 1,518억 /수입: US\$ 1,401억(2016)

자료원: 스웨덴 통계청, EIU, 스웨덴 중앙은행(2017. 4월말 기준)



II. 정치사회동향

1. 정치구조

○ 국왕 (입헌군주제)

- 정치에 참여하지 않고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적 존재이며 국가원수임.
- 주요 권한으로는 국회의 개원, 외교사절의 임명 및 접수 등 의례적인 직무만을 행함.
- 여타 입헌군주제 국가와는 달리 국회의장이 수상 임명권자임.
- 현 국왕인 칼 구스타프 16세는 1973년 9월 즉위하였음.
- 1980년 헌법개정을 통해 왕위계승권자를 장남에서 장자로 변경, 왕위 계승자로 지정된 장녀 Victoria 공주는 2010. 6.19 평민 출신과 혼인함.

○ 의회 (Riksdagen)

- 단원제로써 임기 4년의 349명 의원으로 구성됨.
- 국회의원 선거는 정당 명부제로 실시됨.
- 국회의장 (국가서열 2위)과 부의장 3명이 있음.
- 사민계(사민당 등 3개당 연합)인 여당과 중도우파(보수당 등 4개당 연합)인 야당 구도
- 남녀 의원비율 : 남성 54.4%, 여성 45.6%
- 18세 이상 시민권자에게 선거권 부여
- 주요 권한으로는 수상에 대한 불신임권, 입법권, 예산심의권, 조세권을 가지고 있는 것 이외에 중앙 행정기관에 대한 감독권이 있음.

○ 정부

- 수상은 국회의장이 정당 대표들과 협의, 지명. 재적의원 과반수이상의 반대 없이는 한 임명되며, 각료 임명권(국회동의 필요)을 보유하고 있음. 내각은 국회에 대하여 책임을 짐.
- 내각은 총리, 11개 부처 및 23명의 각료(복수장관제)로 구성
- 수상은 2014.9월 총선결과에 따라 다수당 당수인 스테판 뢰벤(Stefan Löfven, 사민당)을 10월2일 국회에서 승인



○ 사법부

- 일반사건(형사,민사)과 행정사건(개인과 기관과의 분쟁)을 분리, 일반법원과 행정법원이 각기 독립하여 고유의 관할권을 갖고 각각 3심 제도를 택하고 있음.
- 일반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은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행정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은 행정대법원, 행정고등법원, 행정지방법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한편, 특별법원으로 고용주와 고용인간 분쟁을 담당하는 노동법원,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분쟁을 다루는 시장법원, 특허항소법원, 환경법원 및 임차주와 임차인간의 분쟁을 다루는 임차심의위원회가 있음.

○ 지방행정제도

- 전국이 21개주 (Län)와 290개 군(Kommun)으로 구성
- 각 지방의회 선거는 4년 주기로 국회의원 선거와 동일자에 실시
 - 관할업무 : 도로, 공원, 교통.통신, 상하수도, 보건의료 서비스, 초중고 교육, 문화, 여가활동 지원 등
- 중앙정부는 지방정부법 및 관련 법령을 근거로 지방정부에 대한 지침하달 및 감독기능 수행

2. 최근 정치동향

□ 2017년 스웨덴 국내정책

- 생산성 및 경쟁력을 회복하고 2020년까지 EU내 최저실업률 달성
- 주요 교육정책으로 학습 성과 신장, 형평성 강화, 교사 직업군 투자 추진
- 지속가능한 사회로써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여 화석연료 제로화 실현
- 테러에 참여하기 위한 여행은 범죄로 다루어 법 집행기관이 보다 강력하게 이행하며 스웨덴보안국의 재정지원을 확대하고 경찰-세관-해안경비대간 협력 강화



□ 글로벌 안보

스테판 뢰벤 총리는 2017년도 정부 안보정책을 아래와 같이 발표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은 냉전 이후 유럽 안보질서에 가장 심각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고 러시아의 크림반도 불법 병합은 국제법 위반이며 힘에 의한 국경선 변경은 허용될 수 없음. 따라서 변화하는 안보상황에 따라 국방비를 증대하고 군사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아울러 국제협력도 심화해 나가돼 특히 핀란드와의 협력을 주요 우선순위 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임. 또한 테러리즘, 사이버 취약성, 전염병 및 기후변화를 주요 위협요소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초당적 합의를 도출하겠음.

□ 시리아 분쟁 및 난민문제

스웨덴은 인도주의적 지원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로 자유, 평화, 인권문제를 중시하고 있으며, 시리아 분쟁으로 발생한 수백만 명의 전쟁 난민을 포용하는 등 난민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함. 2015.9월 스웨덴-독일 정상회담에서는 EU난민 시스템 개혁 및 의무적 난민수용 쿼터제 도입에 대한 필요성도 논의하는 등 모든 EU회원국들이 책임을 분담하자고 건의한 바 있음.

그러나 최근 들어 시리아 난민의 스웨덴 유입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2015.11.24일 스테판 뢰벤 수상이 난민유입을 줄이기 위해 외국인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고, 2016년 6월21일 의회에서 통과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외국인법 개정 (난민유입 관련, 늦어도 '16.4월까지 EU가 정한 최소 수준으로 변경 하여 3년간 유효 예정)
- 쿼터제를 통해 들어오는 난민을 제외한 모든 난민들에게는 한시적 거주권을 발급 하고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제한
- 한시적 거주권을 가진 가장의 경우, 직계가족과 합칠 수 있는 자격을 부여 하나 이를 위해서는 가장의 나이가 최소 21세 이상이어야 하고, 1년 거주권을 가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 기타 특수한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거주권 발급은 하지 않고, 인권 보호를 위한 특수 권리권을 발급
- 난민의 스웨덴 유입 시 버스와 기차에서도 ID 컨트롤을 강화할 예정으로 ID가 없으면 스웨덴에 들어 올 수 없도록 규제



한편 2016년에는 스웨덴 정부가 난민유입과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재정 예산은 스웨덴의 연간 국제 원조금액의 30%를 상회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난민 정책을 강화함. 스웨덴 이민청은 난민 수용인원을 2015년 16만3천명, 2016년 4만5천명으로 집계함.

3. 대외관계 및 정책

- 스웨덴 외교안보정책의 5대 목표
 - 인권과 민주주의 옹호
 - 경제적, 사회적 정의 구현
 - 국제 자유무역 추구
 - 건전한 환경을 위한 주도적 역할
 - 군비축소 노력
- 1814년 이래 “평시 비동맹, 전시 중립” 노선을 견지하면서, 세계평화 조성에 기여
 - NATO 비회원국이나 협력국 지위를 활용, 공동훈련 및 EU공동안보 활동에 적극 참여
 - 한편, 지난 2014년 9월 스웨덴이 나토와 체결한 ‘Host Country Agreement with NATO’ 양해각서가 ‘16.5월 스웨덴 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나토 호스트국협약’이 정식 발효됨. 이에 따라 앞으로 스웨덴은 위기나 전시상황시 나토군의 지원을 쉽게 받을 수 있으며, 필요 시에는 호스트국가로써 스웨덴 영토내에서 나토군의 연합작전 훈련과 교육도 실시할 수 있게 됨.
- 2010년 침략대비 국방에서 임무수행 중심의 국방체제로 전환하고 국제평화 유지활동(PKO)을 강화해왔으나, 발틱해 안보 불안으로 2018년부터 징병제로 다시 환원
 - ‘10년 7월부터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
 - 해외평화유지군 파견규모 : 884명 (2015)
 - 주요 파병국 : 아프카니스탄, 코소보, 소말리아 등



- 인권, 환경, 복지 등 인간 안보(Human Security) 분야 선도
 - 중동, 중남미 등지로부터 정치적 망명 및 분쟁지역 출신 난민 다수 포용
- 개도국 개발원조(ODA) 활동에 선도적 역할
 - 2006년 이래 GNI 대비 ODA 비율 1% 유지로 세계 최고수준이며 45억불 규모로 세계 8위임.

4. 주요 지역협력

- 유럽연합 (EU)
 - '95년 1월 가입 이후 대내외적으로 EU정책과 조화를 추진.
 - '09년 하반기 EU 의장국 수임, 리스본 조약 출범에 기여
- 북구협력 (Nordic Cooperation)
 - 1952년 헬싱키 조약체결이후 공식협의체로 발전
 - 스웨덴은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 아이슬란드 등 북구 5개국 협의체인 북구 이사회(Nordic Council)에서 주도적 역할 수행
 - 2013년에 스웨덴이 의장국 역할을 수행
- 발트해 협력
 - 발틱 3국의 자립발전을 목표로 1992년 스웨덴 주도로 창립
 - 동 지역이 자국의 안보상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서구 편입을 적극 지원

III. 한국-스웨덴 관계

☐ 개요

- 한국전 당시 스웨덴은 1950년 의료지원단 파견함.



- 1959. 3.11 외교관계수립이후 정치, 경제,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1세기 들어 포괄적인 협력관계로 발전

□ 체결협정

체결 협정	체결일	체결내용
	1967년 4월	무역의정서
	1969년 10월	사증면제협정
	1979년 2월	섬유협정
	1981년	이중과세방지협정
	1985년 1월	경제산업기술 및 과학협력협정
	1995년	투자보장협정
	2009년	군사기밀보호협정 및 국방협력양해각서
	2009년 10월	과학기술협력협정 발효
	2010년 9월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협약
	2013년 9월	한-스웨덴 사회보장협정

□ 최근 주요 인사교류

- 요한 페르손 스웨덴 총리 방한 ('00년 10월)
- 김대중 대통령 스웨덴 방문 ('00년 12월)
- 본 쉬도우 국회의장 방한 ('06년 4월)
- 한덕수 총리 방한 ('07년 9월)
- 칼 구스타프 16세 국왕 방한 ('08년 4월)
- 이명박 대통령 스웨덴 공식방문 ('09년 7월)
- 칼 구스타프 16세 국왕 공식방한 ('12년 5월)
- 스웨덴군 총사령관 스베커 여란손 방한('15년 3월)
- 빅토리아 스웨덴 왕세녀 내외 방한('15년 3월)
- 우르반 알린 국회의장 방한(2015년 4월)
- 안나 요한손 인프라장관 방한(2015년 5월)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방문(2015년 5월)
- 가브리엘 빅스트림 보건의료체육장관 방한(2015년 9월)



- 미카엘 담베리 기업혁신장관 방한(2015년 11월)

□ 교민현황

- 스웨덴 체류 동포 수는 약 2,500명이며 약 10,000명의 입양한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스웨덴의 대한반도 관계

- 남북한에 각각 상주공관 운영
 - 1975년 서방국가 중 최초로 북한 상주공관 설치, EU와의 교류, 호주, 미국, 캐나다 3개국 이익대표부 역할 수행
 - EU의 공동외교안보정책 원칙에 따라 대북정책 수행
 - 스웨덴 주재 북한대사관은 1973년 개설
- 한국전 이후 중립국감독위(NNSC) 소속 국가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지속 기여

IV. 시장특성 및 상관습

□ 시장규모 및 특성

- 1천만 명의 인구를 가진 스웨덴은 북유럽에서 가장 큰 시장이나 다른 외국 시장에 비해 협소한 관계로 수출주도형 산업구조가 발달함. 또한 기업 창업 시부터 글로벌시장을 목표로 창업하기 때문에 스웨덴은 일찍부터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글로벌 기업 육성 및 산업발전을 이루어 왔음. 전체 연간 수출 규모는 약 1,341억불, 수입규모는 약 1,271억불 수준임. 대한 수출규모는 약 13억불, 대한 수입규모는 약 8억불 규모임.



- 주요 스웨덴기업 : Volvo, Ericsson, Vattenfall, Nordea Bank, Skanska, SEB, ABB(스위스-스웨덴 합작), AstraZeneca(영국-스웨덴 합작), IKEA, H&M, Saab, Electrolux, Tetra Pak, Assa Abloy, Atlas Copco, SKF, Sandvik 등 글로벌 기업 다수 보유
- ICT, 패션, 디자인, 생명공학, 자동차, 재생에너지, 산업기계, 자동화설비, 제지산업, 광업(철광석) 분야 등에서 두각

스웨덴 대표 재벌그룹 발렌베리(Wallenberg)

- 1856년 그룹창업주인 Andre Oscar Wallenberg가 1856년 SEB (Skandinaviska Enskilda Banken) 창업을 시작으로 현재 5대에 걸쳐 150년 이상 경영되고 있는 북구 최대 재벌그룹임.
- 현재 그룹 지주회사인 Investor AB의 회장은 Jacob Wallenberg가, SEB 회장은 Marcus Wallenberg가 각각 맡으면서 발렌베리 그룹의 5세대를 이끌고 있음.
- 발렌베리 그룹은 직간접적으로 스웨덴 GDP 및 스웨덴 상장기업 시가총액의 1/3을 차지할 정도로 영향력이 매우 큼.
- 현재 발렌베리 그룹은 Investor AB사를 비롯, SEB, Electrolux, Saab, Atlas Copco, Ericsson, ABB, Husqvarna, SAS, SKF, Stora Enso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

* 참고사항

- Nordic 국가 :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페로제도와 그린란드포함), 핀란드(올란드 제도포함), 아이슬란드 전체를 지칭함.
- Scandinavia 국가: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의 3개 왕국을 지칭함.
- 소비재의 높은 해외 의존도로 인해 외국과의 교역에 대해 매우 긍정적이며 외국 제품에 대해서도 품질과 가격만 괜찮다면 거부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음. 안정된 수입과 잘 발달된 사회보장 제도로 인해 높은 품질의 내구성이 좋은 제품을 선호하며, 자국산 제품에 대해서는 매우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음.



- 대부분의 스웨덴 소비자는 내구성 제품에 대해서는 유명 브랜드나 자국산 제품을 선호하고 있으며, 높은 품질 수준과 적극적인 A/S를 요구하고 있음. 하지만, 일반 소비재 제품에 대해서는 가격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품질대비 가격을 철저히 비교함.
- 철저한 신용위주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구매 후 자유로운 반품, 교환 등 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특히 높은 품질 수준을 요구하고 있으며 납기도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음.
- 일반적으로 유통단계별 마진이 매우 높고 부가가치세율이 높아 물가가 매우 비싼 편임.
 - 예를 들면, CIF 가격이 35.5 SEK인 제품의 경우, 관세포함 후 40.00 SEK이 되며 수입상/도매업자는 100% 마진을 붙여 소매업자에게 80.00 SEK으로 제품공급을 하면 소매업자는 다시 이 가격에 80~120% 마진율을 부가해서 VAT를 제외한 소비자 가격이 160.00 SEK이 되며 25%의 VAT 포함시 최종 소비자 가격은 200 SEK에 이르게 됨. 따라서 최종소비자 가격이 수입가격에 5배 이상 되는 경우가 다반사임.
 - 일반 소비재의 경우, 스웨덴 대형유통체인이 글로벌 마켓에서 직접 소싱, 수입후 소비자 판매까지 담당하는 경우가 일반 형태임. 이를 통해 유통단계를 줄여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가격을 제공하면서 전국적인 소매체인점 운영을 통해 상권을 주도하고 있음.
- 스웨덴 전체가구(Household)의 약 70%가 2인이하 가구로서 소규모가족 또는 독신자 문화에 맞는 제품 컨셉이 필요함. (가령 세탁기도 7kg이하 소형 세탁기가 인기가 높음)

□ 소비자 특성

- 스웨덴인의 소비 특성은 매우 실용적으로 유명한 브랜드 제품이라고 무조건 좋아하지 않고 품질만 좋으면 브랜드를 그다지 따지지 않음. 품질이 좋고 값이 싼 한국산 타이어, 양말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이



고 최근에는 승용차, 휴대폰, LED TV 등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제품이 시장 점유율을 높여 가고 있음.

- 스웨덴 비즈니스 특성으로는 보수성과 정확성을 들 수 있는데, 지난 1995년 EU에 가입 했지만 아직 유로화를 쓰지 않는 신중함을 보이고 있음. 시장 규모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한번 제품이미지가 나쁘게 된 업체는 또 다시 스웨덴 시장에 발을 들여 놓기가 쉽지 않는데 이는 동종업계 종사자간 정보공유가 빠르기 때문임.
- 스웨덴 인들은 매우 보수적으로 처음 사귀기는 힘이 들지만 한번 사귀면 평생을 간다는 말이 있음. 비즈니스 세계에 있어서도 한번 거래 관계가 성립 되면 거래선을 잘 바꾸지 않는 경향이 있음. 그리고 오랜 기간 지속된 사회주의 체제에 익숙한 관계로 일반적으로 위험을 감수하는 ‘리스크 테이킹’(Risk Taking)을 꺼리는 경향이 높음. 따라서 스웨덴 시장을 뚫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접근하는 동시에 가격은 충분히 받는 대신에 장기적인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자세가 필요함. 한탕주의(Spot Business) 가 절대로 통하지 않는 시장임을 명심해야 함.

□ 한국상품 인지도

- 스웨덴 소비자의 대부분은 한국이 1960~1980년대를 거쳐 급속도로 공업화 되었으며, 수출 주도적 경제개발 정책을 시행하여 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 또한 88년 올림픽 및 월드컵 개최 등을 통해 국가이미지가 높아졌으며 최근에는 삼성, LG, 현대자동차 및 기아자동차 등 대기업 제품의 현지 시장 진출 확대에 따라 한국산 제품의 품질 및 인식이 과거에 비해 매우 향상된 것을 느끼고 있음. 그러나 일반 소비자의 경우, 한국산 제품의 상표 및 브랜드명을 정확하게 기억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며 일본산 브랜드와 혼동도 자주 하는 편임.
- 한편 수입상, 도매상 등 업계 관계자들은 소비자들과 다른 인식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한국 상품의 기술 수준에 대해서 정확한 판



단을 하고 있음. 이들의 한국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는 소비자들보다는 높았으나 삼성, LG, 현대, 기아 등 대기업 위주의 몇몇 브랜드에 치중되어 있음. 최근 스웨덴 시장에서의 한국 스마트폰과 LED TV, 승용차(시장점유율 10%) 제품 등에서의 높은 품질을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로 한국 브랜드 제품에 대해 좋은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음.

□ 상거래 시 유의 사항

- 스웨덴 소비시장은 전국적인 유통체인점 네트워크를 갖춘 대형 유통업체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관계로 동 유통업체의 공급자로 등록이 되면 북구 시장 진출에 매우 유리함.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하여 스웨덴 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음.
- 대형유통업체들은 유명브랜드가 아닌 제품의 경우, 자체 브랜드의 OEM 주문을 선호하고 있으며 저렴한 인건비를 활용한 해외생산 공장을 운영중인 공급업체를 선호함.
- 또한 해외 생산공장과 거래기업의 윤리경영과 규범도 매우 중요시하여 품질 및 가격뿐만 아니라 잠재공급자의 CSR이나 평판도 공급업체 선정시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음.
- 그밖에 스웨덴 바이어들이 높은 품질과 우수한 디자인 감각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포장 및 딜리버리 등 제반 분야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 처음 진출하는 업체들에게는 다소 까다로운 상대로 비쳐지기도 함.
- 또한 스웨덴이 비교적 윤택한 나라이므로 우수한 품질이면 무조건 다 잘 팔린다는 선입견은 잘못된 것임. 스웨덴 바이어들은 가격에 민감한 편이며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 어느 정도의 가격이면 구입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문제에 길들여져 있음. 글로벌 소싱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품질대비 가격을 항상 고려함.
- 비즈니스 에티켓



-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비즈니스 에티켓이면 충분함. 신용과 진실을 우대하며, 약속한 것은 꼭 지키도록 노력해야 함. 하지만, 인간관계에 있어서 동양식 가치관에 따른 남녀노소간의 차이는 없음. 노인이라고 해서 젊은 층이 특별히 우대하거나 어려워하는 일은 거의 없고 남존여비사상도 없으며 스웨덴 여성들은 왕성한 사회활동을 보이고 있음.

○ 스웨덴의 주요 세율

- 법인세 : 22% (2012년도까지 26.3%였으나 2013년도부터 법인세 인하)
- 부가세 : 일반적으로 25%
- 고용주세 (Payroll Tax) : 31.42%
- 개인소득세 : 기본 과세로 지방세 (평균 31.56%) 및 일정 소득수준이상 소득자에 따른 내국세 추가 (20%, 25% 추가)
- * 연간수입 430,200 SEK(약 52,000불) 이하 소득자 : 지방세만 부과

○ 상담시 유의 사항

- 스웨덴 사람은 일반적으로 차분하며 논리적임. 따라서 현지인과 상담 시에는 대화가 논리적이며, 설득력이 있어야 하고 너무 소란스럽지 않고 조용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음. 대화를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날씨, 스웨덴의 전통행사, 취미, 스포츠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음. 특히 스웨덴인은 대개 2-3개 정도의 취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제는 처음에 이야기를 풀어 나가는 데 상당히 유용함.
- 스웨덴 기업방문 상담시 먼저 스웨덴 기업이 자사 소개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방문하는 우리측 기업이 회사소개를 한 후 상호 관심사항을 논의하는 것이 일반적임.
- 길고 잦은 휴가와 출장 등으로 인해 업무공백이 자주 발생하므로 업무추진이 생각보다 느리고 오래 걸리는 경향이 있으므로 거래를 위해서는 상당한 인내심이 요구됨.
- 보통 방문 1-2개월 전에 미팅약속을 정해야 하고 방문목적은 정확히 알려주어야 함. 서로 시간낭비만 될 수 있는 의례적인 미팅약속은 사전에 철저하게 회피(거절)하는 관행이 있음.

○ 문화적 금기 사항

- 특별한 금기 사항은 없지만 다음과 같은 사항은 주의해야 함.
- 먼저, 여자 상담자에게 남녀 차별적인 언동이나 스웨덴이 섹스의 나라라는 식의 표현은 하지 않아야 함. 그리고 스웨덴이 사회 복지 정책을 시행하면서 전반적인 제도나 분위기가 사회주의 색채를 띠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개방형 자유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산주의와 가깝다는 표현에 대해서는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음.

□ 공공부문

- 스웨덴은 보편적 복지로 유명하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 예산부담도 매우 높은 편임. 스웨덴의 정부 지출은 GDP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개혁의 일환으로 공기업의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통해 정부지출을 줄이고 경영효율화를 도모하고 있음.
- 스웨덴 정부는 49개 기업을 소유하거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스웨덴 경제의 약 25%에 해당하는 규모임.
- 주요 공기업 명단

기업명	업 종	정부지분율(%)
Apoteket	약국	100.0
Board of Civil Aviation	항공업	100.0
Luossavaara-Kiirunavaara	광업	100.0
Svenska Exportkredit	수출금융	100.0
Sveriges Bostadsfinansierings	주택금융대부	100.0
Sveaskog	목재, 펄프	100.0
Systembolaget	주류수입, 소매	100.0
Swedish Railways (SJ)	철도수송	100.0
Teracom Svensk Rundradio	방송	100.0
Vattenfall	전력	100.0
Posten Norden	우편업	60.7
Svensk Bilprovning	차량검사	52.0



Telia Sonera	통신	37.3
SAS Group	항공 및 호텔	21.4
Nordea	은행	13.5

자료원: Ministry of Finance

IV. 최근 경제동향 및 전망

□ 개 요

2010년 5.7% 성장으로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던 스웨덴 경제가 2011년에는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3.9%의 건실한 경제성장률을 달성한 바 있음.

그러나 세계경기 불확실성과 특히 유로존 국가의 재정위기로 인한 수출위축으로 2013년과 2014년에 각각 1.3%와 2.3%의 성장률을 보인 스웨덴 경제는 수출이 회복되면서 2015과 2016년에 각각 3.8%와 3.1%씩 성장함. 2017년에는 세계 경기불안과 불확실성 증가로 2.3%의 성장이 전망됨.

□ 최근 주요 경제지표 동향 및 전망

- 스웨덴 경제는 2009년도 최저점을 지나서 빠르게 회복하였으며 2010년 5.7%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한데 이어 2011년에는 유럽재정위기와 미국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3.9%의 건실한 경제성장률을 달성한 바 있음. 그러나 세계경기 불확실성과 특히 유로존 국가의 재정위기로 인한 수출위축으로 2012년 1%의 낮은 성장세를 보인데 이어,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1.3%와 2.3%의 경제성장률을 보임.
- 2015년에는 민간가계의 소비 증가와 활발한 주택투자에 힘입어 성장했으며 그동안 침체를 보였던 수출도 점차 회복되어 3.8%의 성장을 기록함.
- 2016년에는 난민증가에도 불구하고 2015년부터 안정세에 접어든 정부예산이



흑자로 전환되었고, 부동산가격 상승과 초저금리(마이너스 0.5%) 유지로 민간가계의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면서 경제성장을 견인함.

- 또한 민간가계소비와 공공소비가 각각 2.2%, 2.7%씩 증가하였고 고정투자도 5.5% 증가함.
- 수출 3.0%, 수입 3.3% 증가로 2016년 GDP는 3.1% 성장함.

○ 반면, 민간가계의 경우 소비심리가 다소 회복되기는 했으나 주변국 경기불안을 조심스럽게 관망하는 입장이어서 소비확대 폭은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 2017년에는 세계 경기불안과 불확실성 증가로 GDP 성장 폭이 지난해에 비해 다소 낮아질것으로 예상됨.

- 민간가계소비와 공공소비가 각각 2.2%, 2.1%씩 증가전망이고 고정투자는 전년대비 1.8% 포인트가 낮아진 3.7% 전망됨.
- 수출 2.7%, 수입 2.4% 증가로 2017년 GDP는 2.3%의 성장세가 전망됨.

○ 한편 스웨덴 경제성장의 부정적 요인으로서는 아직도 세계 경기 회복세가 미온적이고, 낮은 국제금리로 가격거품 위험성이 높으며, 스웨덴 주택시장의 가격 붕괴 위험이 크다는 점임.

-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는 자산가격의 팽창현상이 스웨덴에서도 나타나고 있어 위기감도 상존하고 있음.
- 특히, 최근 브렉시트와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스웨덴 경제에도 큰 충격이 예상되고 있음

○ 주요경제지표 전망

구분	'15	'16	'17(전망)
GDP(US\$십억)	495.7	510.5	512.8
GDP 실질성장율(%)	3.8	3.1	2.3
실업율(%)	7.4	6.9	6.8
대미 환율(SEK)	8.43	8.56	8.80
물가상승율(%)	0.0	1.0	1.6



상품수출(US\$십억)	152.1	151.8	163.4
상품수입(US\$십억)	138.5	140.1	152.6
경상수지	23.3	22.0	21.9

자료원 : E.I.U (2017.4월말 기준)

VI. 스웨덴의 투자환경

1. 투자환경

□ 투자지로서의 장점

- 스웨덴은 스칸디나비아 최대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고 노르딕 지역의 중심에 있는 지리적 잇점을 통해 다수의 다국적 기업 북구 판매법인 또는 지역본부가 소재하고 있음.
- 산업체-대학교-연구소간의 공동연구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국에 약 65개의 클러스터(창업보육센터 또는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어서 창업지원부터 입주기업간 공동연구 및 제품개발,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있음.
 - 시스타 (Kista) Science City : 스웨덴 ICT 산업의 본산지이며 에릭슨 본사가 위치하면서 관련 ICT 기업, 연구소, 대학교 등 총 1,500개사 입주, 유럽 최대의 IT 클러스터 형성
 - Medicon Valley(제약, 생명공학)-말뫼/룬드, 자동차 클러스터-예테보리, BT 및 제약 클러스터-웁살라 등
- 스웨덴은 특히 ICT, 자동차, 생명공학, 산업기계, 디자인 및 패션, 의료기기 분야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이 다수 포진하고 있으며 첨단 기술을 보유한 강소기업과 함께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조화를 이루고 있음.



- 우선 우편, 통신 등 사회 간접 자본 이용이 손쉬우며 도시 근교에 오피스 빌딩가를 지어놓고 은행, 우체국 등 기반 설비를 해놓은 비즈니스 단지가 산재해 있어 입주여건이 매우 양호함. 또한 개인, 기업에 대한 정보가 일목요연하게 통제되고 있어 신용 사회 분위기가 정착되어 있으며, 해당 규정과 지침만 준수하면 모든 것을 규정대로 처리해 주기 때문에 예상외의 난관에 부딪히는 일은 거의 없음. 이외에도 철강, 화학, 목재산업 등이 발달되어 있어 기초 원료 조달이 용이하며 광활한 국토와 풍부한 수량 그리고 발달된 사회간접자본 설비로 인해 생산 여건도 매우 양호한 편임.
- 스웨덴은 EU집행위가 발표한 EU회원국 연구·혁신부문지수인 '2016 Innovaton Union Scoreboard'에서 혁신리더 1위 국가로 평가됨.
- 스웨덴의 주요 시장은 독일을 비롯한 EU 국가이며, 이는 총 교역량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스웨덴 자체가 대외 의존형 경제이므로 교역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과 매너는 상당히 개방되어 있으며 그간 쌓아온 국제 사회에서의 신임도와 기술 제품 수출국으로서의 명성 등을 고려할 때, 고부가가치 제품의 스웨덴 진출을 통한 Made in Sweden 제품이라고 한다면 판로 개척에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분석됨.
- 2011년 Facebook이 스웨덴 북부지역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 설립 발표시 지원하고 건조한 스웨덴 기후가 Facebook의 최적의 입지조건이었다고 소개되면서 스웨덴 중남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낙후된 스웨덴 북부지역의 투자유치 활동이 활기를 띠고 있음.
 - 특히 Facebook 투자유치 성공 이후 스웨덴 기후를 이용한 해외 대규모 데이터센터 유치를 위해 적극적으로 프로모션을 진행 중임.

□ 투자지로서의 단점

- 위와 같은 장점 외에도 다음과 같은 단점들도 역시 고려해야 함.
 - 먼저, 고용 비용이 매우 높음. 고용주세 납부로 인해 급여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월등히 높고, 일단 채용하면 해고가 용이치 않음. 근로자가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거나 업무에 적합한 능력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해고가 어



려움. 또한 교통, 통신을 비롯한 제반 물가 수준이 높은 편임. 따라서 투자액 대비 생산되는 제품의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에 한하여 투자해야 할 것임.

□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개방화 정도

- 종래에는 스웨덴의 중요 산업을 보호하는 성향이 강했으나 점차 외국인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동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도 국내 업체와 동일한 대우(지원) 제공을 기본 원칙으로 함.
-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업종에 제한이 없으며,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도 국내 업체와 동일한 대우(지원) 제공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음. 다만 스웨덴 북부지역 개발을 위한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이 지역 투자시 보조금 지원 제도가 있음.

□ 투자 인센티브

1) 세제 인센티브

- 스웨덴의 법인세율은 22%로 다른 유럽국가 및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일반 개도국과 유사한 수준까지 인하하였음.
 -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세 면제
 - 비상장 주식이나 10%이상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장 주식을 1년 이상 보유시 자본이득과 배당금에 대한 세금면제 등

2) 지역 개발 인센티브(북부지역 투자에 대한 지원)

- 스웨덴은 한국과 달리 외국인 투자지역이나 경제자유구역이 별도로 조성되어 있지 않음.
- 그 대신 상대적으로 인구밀도가 현저히 낮고 개발이 부진한 스웨덴 북부지

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서 국내기업 및 외국기업 차별 없이 동일하게 심의를 거쳐 개발 및 고용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 지역개발 보조금의 경우, 투자지역, 기업규모 및 투자분야에 따라 개별 심의를 거쳐 투자금액의 10-50%의 보조금이 지원됨. 투자로 인한 고용효과, 경제성장 및 지역개발의 중요성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지원 비중을 결정함.
- 지역고용 보조금의 경우, 고용효과, 경제성장, 지역 비즈니스 활동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고 각 신청 건에 대한 개별심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액을 산정함.
- 첫 고용 후 계속 고용이 증가할 경우를 전제로 최대 3년간 지원이 가능함.

2. 외국기업 투자동향

- 스웨덴에 유입된 외국인 직접투자금액은 2008년 368억불을 정점으로 2009년 이후 크게 감소함.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2013년과 2014년에도 각각 41억 달러와 40억 달러로 고전을 면치 못하였으며, 2015년에 62억 달러가 유입되면서 크게 상승함. 2016 통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음.

연도별 외국인직접투자금액 (Inward FDI)

(단위 : US\$억)

구분	2013	2014	2015	2016
FDI 순유입액	41	40	62	n/a

자료: OECD(2017. 4월말 기준)

- 스웨덴의 해외직접투자(순유출액)는 FDI순유입액을 초과하는 양상이나, 소비침체 극복을 위한 스웨덴 중앙은행의 마이너스금리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기침체가 지속된 2014년의 해외직접투자액은 전년대비 절반가량 감소한 **91억** 달러를 기록함. 그러나 2015년에는 149억달러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016 통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음.

연도별 해외직접투자액(Outward FDI)

(단위 : US\$억)

구분	2013	2014	2015	2016
FDI 순유출액	302	91	149	n/a

자료: OECD(2017. 4월말 기준)

- 대다수 스웨덴 글로벌기업은 해외기업 인수를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특징인데 특히 주력분야가 아닌 사업체를 분리, 매각하고 핵심 사업분야를 보강하거나 현지 시장진출에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기업인수가 주를 이루고 있음. 2012년초 Ericsson이 SonyEricsson 합작회사에서 보유지분을 모두 Sony에게 매각하고 휴대폰 제조 사업에서 빠져 나왔고, 모바일부문에서는 LG-Ericsson의 보유지분을 75%로 확대한 것이 한 예임.
- 스웨덴 발렌베리 그룹의 지주회사 겸 투자회사인 Investor AB의 CEO에 의하면 유럽재정위기 및 경기침체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중국, 인도 및 중남미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기회를 모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음.

□ 주요 외국 투자 기업

스웨덴은 북유럽과 EU 시장의 주요 연결 통로로 투자자들에게 끊임없는 관심을 모으고 있음. Business Sweden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외국 투자기업의 67%가 스웨덴을 북부 유럽(노르딕) 지역본부로 선택하고 있음. 현재 스웨덴에 북구지역 본부를 설립한 글로벌기업으로는 Procter & Gamble (미국), E.ON (독일), HP (미국), Huawei (중국), 삼성전자 및 LG전자 등이 있음.

VII. 한 · 스웨덴 교역현황

1. 스웨덴의 대외교역 현황



- 스웨덴 경제는 적은 인구로 인한 협소한 내수 시장 극복을 위한 돌파구로 해외 시장을 선택하고 있어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임.
- 2016년 스웨덴의 수출은 1,518억 달러, 수입 140,1억 달러로 GDP 대비 연간 수출입 규모는 2014년 59.6%, 2015년 58.6%이며 2016년 56.4%로 전망됨.

○ 스웨덴 대외교역현황

(단위 : US\$ 억)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수 출	1,843	1,786	1,797	1,521	1,518
수 입	1,623	1,600	1,622	1,385	140,1
무역수지	219	186	175	135	117

자료원 : EIU (2017.4월말 기준)

- 주 교역 국가는 EU국가와 인근 노르딕 국가로서, EU와의 교역비중은 전체의 70%를 점하고 있으며 특히 노르웨이, 독일, 덴마크, 핀란드, 영국으로부터의 교역이 전체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음.
 - 스웨덴의 10대 교역국가중 유럽이외의 국가로는 중국이 유일함.
- 그 밖에 중남미와 아프리카로부터의 수입이 소량을 차지하며, 아시아 국가들로부터의 수입은 점진적인 증가(전 수입량의 9%) 추세임. 아시아로부터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입과 수출비중이 가장 높으며 그 뒤를 일본, 한국, 대만 등이 뒤따르고 있음.
- 주 수입 품목은 소비재 및 고부가가치를 생산하기 위한 산업부품들임. 특히, 일부 특수 산업은 그간 국내 하청공급업체에만 의존하여 왔으나, 점차 외국으로부터의 직접 수입이 증가하고 있음.
- 수입비중이 가장 높은 품목은 원유로 수입의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주요 수출품으로는 정유, 의약품, 통신장비, 자동차, 목재, 제지 등임.



○ 스웨덴의 TOP 10 수출기업

- Ericsson(통신장비), Volvo CC(승용차), AstraZeneca(의약품), Volvo AB (건설기계 및 트럭), SSAB(철강), Sandvik(공구), SAAB(군수품), IKEA(가구), Pharmacia Holding(의약품), Södra Skogsägarna(펄프,제지)

2. 우리나라의 대스웨덴 수출입 현황

□ 상호 보완적 수출입 산업 구조로 교역 확대 잠재력 보유

- 스웨덴은 우리나라와 상호 보완적 수출입 산업 구조를 이루고 있어 교역 규모 확대 잠재력이 있음. 특히, 통신장비, 디젤엔진, 화물자동차, 의약품, 산업기계 등의 산업용품은 한국에 수출하고, 휴대폰, 승용차, 타이어, PC, 가전제품 등 소비재는 한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음.

□ 한국·스웨덴 교역 현황

- 2015년 우리나라의 대스웨덴 수출은 전년대비 19.7% 감소한 6억 9,900만 달러를 기록하였고 대스웨덴 수입은 전년대비 11.6% 감소한 15억 9,200만달러를 기록함.
- 2016년 우리나라의 대스웨덴 수출은 8억 400만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15.1%가 증가했으며, 대스웨덴 수입은 15억9,300만달러로 0.1%가 증가함.
2016년 대스웨덴 주요 수출 품목은 승용차, 자동차배터리, 자동차부품, 평판압연제품 등이며, 주요 수입 품목은 화물자동차, 디젤/세미디젤 엔진, 의약품 수입.

한-스웨덴 교역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연도	2013		2014		2015		2016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금액	872	1,624	871	1,799	699	1,592	804	1,593
증가율	-10.6	11.6	-0.2	10.8	-19.7	-11.6	15.1	0.1

자료: KITA 수출입무역통계 (2017.4월말 기준)

□ 주요 교역 품목

대스웨덴 10 대 수출품목

(단위: USD 백만, %)

순위	품목명	2015		2016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699	-19.7	804	15.1
1	승용차	136	-11.5	241	78.1
2	자동차 배터리	77	33.7	147	91.2
3	자동차 부품	35	-4.9	41	17.1
4	평판압연제품	36	-24.4	39	8.8
5	타이어	25	-36.0	29	19.0
6	무선전화기	88	-40.2	23	-74.3
7	배전 및 제어기	23	-0.4	21	-11.8
8	냉장·냉동고	15	-42.6	16	6.4
9	기타 기계부품	11	-8.5	13	19.8
10	에틸렌 중합체	4	179.9	8	110.6

자료: KITA(HSK 4단위/2017년 4월말 기준)

대스웨덴 10대 수입품목

(단위: USD백만, %)

순위	품목명	2015		2016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1,592	-11.6	1,593	0.1
1	화물자동차	124	7.9	153	23.1
2	디젤/세미디젤 엔진	65	-12.3	78	67.7
3	의약품	73	-16.3	72	-2.1
4	승용차	47	30.1	71	8.7
5	반도체 보울이나 웨이퍼	40	-28.7	70	73.3
6	일반기계	60	-4.4	44	-26.9
7	트랙터	42	-2.6	43	4.1

8	진단용조제시약	6	5.4	42	626.6
9	선철 (알갱이와 가루)	44	-21.4	38	-13.6
10	스테인레스강 평판압연제품	39	21.7	35	-11.4

자료: KITA(HSK 4단위/2017년 4월말 기준)

VIII. 한 · 스웨덴 투자현황

1. 스웨덴에 대한 직접투자현황

- 2015년 스웨덴의 대한투자 신고액은 약 850만 달러로 전년대비 약 30% 정도로 크게 감소함. 1962년부터 2015년까지 누적 통계는 2,083백만 달러임.

스웨덴의 대한 투자현황

(단위: 신고건수, US\$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4월말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6	273,086	5	8,499	11	7,020	4	176,390

자료원 : 산업통상자원부

- 유럽재정위기 및 경기침체의 여파를 겪은 2009~2010년과 2013년을 제외하면 스웨덴의 대한 투자는 활발한 편이었으나 2015년에는 대한 투자가 크게 감소함. 대부분의 스웨덴 글로벌 기업이 한국에 투자진출해 있으며, 현재 한국에 직접투자를 통하여 영업활동중인 스웨덴 기업은 약 70개사로 총 누적투자금액은 약 21억 달러임.
- 주요 투자기업 : IKEA, Wallenius Logistic, Autoliv, Scania, Envac, Ericsson, Volvo, Sandvik, Assa Abloy, SKF, Gambro 등
- 주로 대형유통, 산업기계, 의료기기, 자동차부품, 통신기기, 재생에너지 분야의 스웨덴 기업이 대한국 투자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



○ 스웨덴기업의 주요 대한투자 내역

(국내)업체명	투자자명	분야	신고금액 (US\$천)	투자년도
이케아 코리아	IKEA	가구유통	200,000	2011
에릭슨-엘지	LM Ericsson	통신설비	190,000	2012
스칸디나비아바이오가스	SCANDINAVIAN BIOGAS FUELS AB	바이오가스	5,890 (5,300)	2012 (2011)
회가내스코리아프로덕션	Höganäs AB	금속분말	6,000 (35,007)	2013 (2011-12)
스테나대아라인 / 신양라인	Stena	물류	1,250 (8,800)	2015 (2013~2014)
스카니아 코리아	Scania	상용차	3,000 (13,000)	2015 (1995~2014)

2. 한국의 대스웨덴 투자동향

- 현재 한국이 스웨덴에 직접 투자한 금액은 한국수출입은행 통계기준, 2015년 말까지 총 9,671만 달러를 투자하였으며 총 20개의 법인 설립이 신고 되었음.
- 현재 스웨덴에 진출하여 영업중인 한국기업은 총 9개사임.(법인 7개, 지사 2개)
 - 삼성전자, LG전자, 기아자동차, 현대상선, 현대모비스, 한국타이어, 제일노르딕이 법인으로 진출했으며 대한항공카고, 넥센타이어가 지사로 진출해 있음.



〈첨부〉 체류시 편의 정보

1. 주요 연락처

대 상	연 락 처	비 고
KOTRA 스톡홀름 무역관	TEL : +46-(0)8-30 8090 FAX : +46-(0)8-30 6190 E-mail : stockholm@kotra.nu	국제전화시에는 지역번호앞의 0을 누를 필요가 없으며 스톡홀름에서 일반전화로 전화 시에도 08을 누를 필요가 없음.
비상구급대 (경찰)	112(응급상황 발생시) 11414(경찰)	경찰, 병원, 소방서 등 여러 기관을 상황에 따라 연결해주고 있으며 비상상황 발생시 도움 요청 가능
콜택시	Taxi Stockholm : 08-15 0000 Taxi Kurir : 0771-860000 Taxi 020 : 020-202020	전화를 걸어 소재지를 말하면 5-10 분 사이에 택시가 도착함.
전화번호 안내	118 118	
한국대사관	073-330 1616/070-767 2350 (0)8-5458 9400	홍순복 서기관

2. 간단한 현지회화

- 아침인사 : God morgon! 굿-모론
- 낮인사 : God dag! 굿-다그
- 저녁인사 : God natt! 굿-나트
- 고맙습니다. : Tack! 탁 또는 Tack så mycket! 탁 소 뮈케
- 네/아니요 : Ja 야/Nej 네이
- 숫자 1 : En 엔, 2 : Två 트보, 3 : Tre 트레, 4 : Fyra 뮈라
- 얼마입니까? : Hur mycket kostar det? 휘르 뮈케 코스타 뎃
- 실례합니다 : Ursäkta 우르썬타 또는 Ursäkta mig 우르썬타 메이



- 미안합니다 : Förlåt 뭐르 롯
- 헤어질때 인사 : Hej då! 헤이도

3. 기후

○ 기후 특성

- 알래스카나 남부 그린랜드와 동일한 위도 상에 위치하고 있으나, 이들 지역 보다는 기후가 따뜻함. 이는 멕시코만 난류가 노르웨이 해안을 따라 흐르고 있어, 스칸디나비아 반도 전역에 걸쳐 다소 훈훈한 서풍이 불고 있기 때문임.
- 스웨덴 북부에 위치한 노를란드(Norrland) 지방은 전 지역이 1년 중 6개월 동안 눈으로 덮여 있음. 특히 이 북부 지역에서는 6월과 7월에 걸쳐 수주일 동안은 낮이 24시간 계속되는 백야 현상을 볼 수 있음.
- 스톡홀름은 보통 겨울날씨가 11월부터 4월초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최저기온은 -20도까지 내려가기도 하며 폭설이 잦은 편임. 여름은 6-8월이며 낮기온이 간혹 25-30도 정도까지 올라가기도 하나 대체로 여름에도 25도 이하로 시원한 편임.

○ 방문(출장)시 추천 복장

- 대부분 서구 국가와 같이 중요한 모임에는 정장을 갖추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복장이 그렇게 중요하게 고려되지는 않음.
- 비즈니스 미팅 시 정장 또는 콤비, 비즈니스 캐주얼(넥타이 미착용) 등이 무난함. 일반적으로 스웨덴 비즈니스맨은 평소 넥타이를 착용하지 않음.
- 10월부터는 아침기온이 0도 가까이 떨어지고 낮에도 7-10도 정도인 관계로 출장 시 코트나 잠바를 반드시 준비하는 것이 좋음.
- 2월 날씨는 아침에 영하 2~8도, 낮에 0~3도 정도임.

4. 시차, 근무 시간 등

○ 시차

- 스웨덴의 표준 시차는, 동계 GMT + 1시간 (10월말에서 3월말), 하계 GMT + 2시간 (3월 마지막 일요일에서 10월 마지막 일요일)임.



- 하계의 경우 한국보다 7시간, 동계의 경우는 8시간 늦음.

○ 근무 시간

- 주당 근무시간은 최대 40시간으로, 계절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음
- 은행 근무시간은 통상 10:00~15:00 임.

○ 입국 및 통관

- 일반적인 유럽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입국 및 통관에 있어 특별히 유념할 사항은 없으나, 사전검역 등을 요구하는 반입제한 품목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 (3개월 무비자 입국 체류 가능)

○ 환전

- 유로화나 달러화는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으므로, 현금 지불시 스웨덴 크로나화 환전 필요(환전은 Forex Bank, X-Change 등 공항이나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전문 환전소 이용) 단, 택시요금뿐 아니라 패스트푸드점 등에서의 소액 지불도 신용카드 결제가 일반적이므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임. (VISA 카드가 가장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음)

* 2017.4.24. 중앙은행 기준환율 : 1 SEK = 127.72원

1 USD = 8.97 SEK

1 EUR = 9.63 SEK

○ 국제전화

- 스웨덴 → 한국 : 00-82-지역번호(서울 2)+전화번호
- 한국 → 스웨덴 : 001-46-지역번호(스톡홀름 8)+전화번호
- * 호텔에서 국제전화 사용 지양 (25분 이상 통화 시 숙박비보다 비쌈)
- * 국제전화 카드 이용 권장 (필요시 무역관 직원에게 구입 요청)

○ 인터넷 사용 (Broad Band)

- 노트북 휴대 시 객실에서 대부분 인터넷 사용 가능. 한국보다 속도가 많이 느린 편이며 무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이 많아지고 있으나 유료서비스도 있는 바 무료여부를 확인해야 함. 비용은 평균적으로 1시간 40크로나(약 6,400원), 2시간 60크로나(약 9,600원), 24시간 120크로나(약 19,200원) 수준

○ 전압

- 230Volt, 50Hz(한국은 60Hz)로 노트북 등 일반 전자제품의 경우 별 문제없이



사용 가능하나, 모터동력 전자제품(세탁기, 냉장고, 진공청소기 등)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장시간 사용 시 고장 우려가 있음.

5. 식당

- 스웨덴 전통 음식으로는 대부분이 생선(청어, 연어) 요리를 중심으로 한 것이며, 가정 요리로는 미트볼과 팬케익이 유명함. 시내 곳곳에 이태리식, 중국식 식당이 있으며, 스시집, 동남아식, 아랍권의 식당들도 많이 있음. 버거킹, 맥도널드와 같은 패스트 푸드점도 쉽게 찾아볼 수 있음.
- 점심식사의 경우에는 팁을 줄 필요가 없으며 저녁식사의 경우에는 약 10% 정도의 팁을 주는 것이 관행임. 스톡홀름 내 주요 식당 다음과 같음.

식 당 명	주 소	전화번호	비 고
남강	Birger Jarlsgatan 38	08-611 3292	한식
아리랑	Luntnakargatan 65	08-673 3225	한식
코리아하우스	Ynglingagatan 13	08-30 9620	한식
김치	Luntnakargatan 95	08-684 02629	한식
밥 하우스	Lovangsvagen 4	073 982 2098	한식
Sakura	Luntnakargatan 59	08-673 4555	일식
Hong Kong	Kungsbro Strand 2	08-653 7720	중식
Operakallaren	Karl XII:s torg	08-676 5800	스웨덴식
Villa Källhagen	Djugårdsbrunnsvägen 10	08-665 0300	서양식
Villa Godthem	Rosendalsvagen	08-661 0722	스웨덴식
Ulriksdahls VH	Ulriksdals Slottspark	08-85 0815	스웨덴식
Capri	Nybrogatan 15	08-662 3132	이태리식

6. 체류시 유용한 정보

- 일반적으로 스웨덴인과 영어소통에 지장이 없으며 스웨덴 기업인들의 영어사용은 매우 자연스러운 실정임. 그러나 영어간판, 영문 카탈로그나 영어로 된 웹사이트 등은 매우 드문 실정임.
- 세계적 민간교육기관인 EF,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은 44개 국가 200



만명 대상 3년간 (2007-2009년) 무료 온라인 테스트 결과, 스웨덴이 동 조사 대상 국가 중 노르웨이, 네덜란드, 덴마크에 이어 4위 차지

○ 약국

- 녹색바탕 간판에 흰색으로 Apotek 또는 Apoteket으로 표시되어 있는 곳이 약국임.

○ 슈퍼마켓

- Coop, Hemköp, ICA, Willys, Rusta, Lidl 등 다수의 대형 매장이 있으며, 대부분 평일 오전 7시에서 오후 8시까지 영업함. 최근 들어서는 오후 10시까지 영업하는 매장들이 늘고 있음. 그밖에 동네마다 소형 슈퍼가 있음.
- 주류판매는 알코올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독점하고 있으며 공기업인 Systembolaget 매장에서만 구입할 수 있음. 일반 슈퍼에서는 알코올 도수 3.5도 이하의 맥주는 구입할 수 있음.

○ 쇼핑

- 중앙역 부근(T-Central), 슬루센 (Slussen), 웨스테르말름(Östermalm)등에 주요 쇼핑가가 있으며 시내중심에 있는 세르겔 광장 (Sergel Torg) 주변에도 NK 등 주요 백화점 및 쇼핑몰이 소재하고 있음.
- 주요 특산품 : 크리스탈 제품, 도자기 제품, 목각말 인형(달라 해스트) 등

○ 대중교통

- 택시

- . 택시 이용가격은 한국에 비해 약 4배 정도 비싼 편임. 스톡홀름의 대표적인 택시 회사인 Taxi Stockholm의 경우, 택시를 지정 장소까지 호출하는 기본 요금이 36kr이며, 09:00~15:00시간대에는 시간당 294kr에 km당 7.60kr를 합산하여 가격이 계산되며, 그 이외 시간대에 택시를 이용할 경우에는 가격이 좀 더 비싸짐.
- . 택시는 회사나 지하철역 근처 또는 호텔 등지에서 대기하고 있으며, 승객을



찾아 시내를 배회하지는 않음. 필요 시 호텔 프런트에 부탁하거나 전화 또는 공중전화로 직접 호출할 수 있음. 호출 시 승객 명, 택시 대기 장소, 목적지 등을 말해야 하며 택시 도착 시간을 정확히 알려주면 호출 후 10분 이내에 도착하는 게 보통임. 택시 요금 지불 시 금액에 관계없이 각종 신용카드로 지불이 가능하며 택시 요금 영수증을 발급받게 됨.

- 택시의 외부나 지붕위에 택시회사를 표시하는 사인보드가 있으며, 대개 스톡홀름 시내에서 알란다 공항간의 고정 요금(Taxi Stockholm의 경우 520 크로나)이 명기되어 있음. 표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사전에 가격을 확인하는 것이 좋음. 이용할 만한 택시 회사로는 Taxi Stockholm(전화: 08-150000), Taxi Kurir(0771-860000), Taxi 020(020-202020) 등이 있음.

- 시내버스

- 스톡홀름은 시내버스와 지하철 노선이 잘 연계되어 있을 뿐 아니라 한 티켓으로 지하철과 시내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음.
- 승차권은 SL Center나 지하철역 근처의 편의점(Pressbyrån) 및 슈퍼 또는 버스정류장의 자판기에서 사전 구입하여야 하며, 시내버스 승차 후 기사에게 직접 구매할 수는 없음.
- 버스표를 SMS로 구입하려면 사전에 SL 홈페이지에 휴대폰 번호를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방문객들은 이용이 어려움.
- 반면 핸드폰 앱을 통한 구매는 가능함. 방법은 핸드폰 앱 구매창에서 SL Biljetter를 검색하면 다운 받을 수 있으며, 설정 란에서 카드지불 또는 인보이스 발급 중 선택할 수 있음.

- 지하철

- 지하철의 경우, 모든 입구는 청색의 "T"(툰넬바나, Tunnelbana의 약자, 스웨덴어로 지하철을 의미함)로 표시되어 있음.
- 정액권으로는 1일권(120 SEK), 3일권(240 SEK), 7일권(315 SEK), 30일권(830 SEK)등이 있음.
- 1회 탑승권 요금은 자동발매기, SMS, SL 모바일 앱 상관없이 모두 43 SEK임. 보통 탑승권을 구입한 순간부터 75분 동안 무제한으로 버스와 지하철 이용 가능함. 다만 SL카드에 직접 탑승권을 충전한 경우와 SL Center 직원에게 탑승권 구입 시에는 탑승권을 개시한 순간부터 75분 동안 사용 가능

함.

○ 치안

- 치안은 매우 양호한 편이나 심야 단독 외출은 삼가는 편이 안전함. 강력 범죄는 드문 편이나 좀도둑이 적지 않으므로 공항, 호텔, 기차역 등 공공장소에서 가방, 노트북 같은 개인 소지품 분실에 늘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최근 이민자수가 전체 인구의 **22%**에 달하는 등 일부 이민자 밀집 거주지역에서는 강력범죄도 가끔 발생하고 있음.

○ 식수

- 수질이 우수하여 식수 불가 표지가 없는 한 수돗물(찬물)을 직접 식수로 음용하고 있음.

7. 주요 관광지(스톡홀름 중심)

○ 구시가지(Gamla Stan)



옛 시가지로 1252년 스톡홀름이 설립된 곳임.

작은 섬이지만 왕궁, 대성당, 박물관 등 관광명소로 가득 차 있으며 중세 도시의 정취를 느낄 수 있음. 왕궁의 서북쪽에는 의회청사가 있고 그 주위에는 내각청사(Kanslihuset), 외무성, 내무성을 비롯하여 관청가를 이루고 있음. 구시가지에 스웨덴 한림원(Svenska Akademien), 노벨박물관도 있음.

○ 시청사(Stadshuset)

	시청사는 구스타브 바사 왕이 덴마크를 격퇴하고 스톡홀름으로 들어온 지 400년이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1923년에 건축함. 시행정의 중심부로 시의회의 회의나 행사에 이용되며, 청사 내 윌레네 살렌(Gyllene Salen)이라고 황금방에서는 매년 12월10일 노벨상 수상자를 위한 축하 연회가 열림. 가이드 투어를 통해서만 시청사 관람이 가능하며 매일 스웨덴어와 영어로 이용 가능함. 웹페이지 www.stockholm.se/stadshuset 입장료 70-100SEK
---	---

○ 바사박물관(Vasa Museet)

	바사박물관은 1628년 처녀출항 때 스톡홀름 앞바다에 침몰, 333년 후에 인양 된 전함 바사호(전장 약 70미터)의 원형 모습이 그대로 전시되어 있음. 구스타브 아돌프 2세의 명으로 건조된 바사호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보존된 17세기 전함으로 인양 후 반세기 동안 본래 모습에 가깝게 복원됨. 매년 1백만명이 넘는 방문객이 다녀가며, 스칸디나비아에서 가장 많은 방문객을 보유한 관광지로 알려짐. 웹페이지 www.vasamuseet.se 입장료 130 SEK
---	--

○ 스웨덴 민속촌(스칸센, Skansen)

	과거 왕가의 사냥터였던 유고르덴 섬에 위치한 스칸센은 세계에서 가장 큰 야외 민속박물관중 하나로 150개의 전통 주택, 수공예점, 동물원 등이 있음. 하지축제, 루시아 축제 등 스웨덴 전통행사를 이곳에서 개최함. 웹페이지 www.skansen.se 입장료 100-180 SEK
---	--

○ 드로트닝홀름 왕궁(Drottningholm Palace)



	16세기 중반 요한3세 국왕이 Katarina Jagellonika 왕비를 위해 건축한 궁으로 1661년 화재로 전소된 후 1662년 Dowager 여왕의 명에 따라 건축가 Nikodemus Tessin the Elder가 새롭게 재건한 것이 현재에 이르고 있음. 프랑스 바로크와 로코코 양식이 잘 어울려져 있어 스웨덴의 베르사이유 궁이라고 불림. 1777년 구스타브3세와 Lovisa 여왕이 정부에 팔았다가 1981년 현 왕가에서 다시 사들였으며, 현재 스웨덴 국왕가족이 거주하고 있음. 드로트닝홀름은 여왕섬(Queen's Island)이라는 의미로 UNESCO 등재 세계 유산임. 궁전과 공원은 일년 내내 방문객들에게 개방되어 있음 웹페이지 www.kungahuset.se 입장료 130 SEK
--	---

○ 밀레 조각공원(Millesgarden)

	스웨덴 조각가 Carl Milles(칼 밀레)가 자신의 작품을 550평 규모의 조각공원을 조성하여 기증한 것으로 1939년 일반에 공개 됨. 수려한 주변 경관과 어우러진 멋진 조각 작품을 감상할 수 있음. 작품에 사용한 주물과 조각도구는 스튜디오에서 관람할 수 있음. 웹페이지 www.millesgarden.se 입장료 150 SEK
--	--

○ 현대미술관(Moderna Museet)



1958년 개관한 미술관으로 20세기 및 21세기 예술작품이 주를 이루고 있음. 피카소, 달리, 데르 케트, 마티스 등 예술가의 작품을 관람할 수 있음. 야외에 조각품 및 설치조형물도 전시되어 있음. Skeppsholmen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 동아시아박물관이 위치함.

웹페이지 www.modernamuseet.se 무료입장

○ 국립박물관(National Museet)



1866년 개관한 이래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그림, 조각품 및 그래픽 아트 등을 전시하고 있음. 시즌별로 해외유명화가 작품이나 특정주제에 대한 기획전시회가 병행 전시됨.

동 박물관은 현재 개축 공사 중이며 2018년에 개장예정임. 공사 기간 중에는 왕립 스웨덴 예술 아카데미와 쿨투르휘셋 (Kulturhuset)에서 공동 전시회를 개최하며 전시를 지속함.

웹페이지 www.nationalmuseum.se



www.kotra.or.kr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